

화순군, 위기가구 지원 위한 민·관 통합사례 회의 개최

발달장애인 복지협회 등 6개 기관 참여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2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문제해결'과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통합사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사례회의' 대상자는 가구원 전체가 지적장애를 가진 한부모가구로 도움을 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으며 여러 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중복지원 등의 문제와 맞춤형 복지 대상자로 급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화순교육지원청, 전남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햇살장애인주간보호센터, 효사랑복지센터, 화순읍맞춤형복지팀 등 6개 기관이 참여 통합사례 회의를 거쳐 대상자의 현재 상황과 가족 및 이웃의 지지체

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가구의 개입 방법과 기관별 역할,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육구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 맞춤형 복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관별 서비스를 제공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급여관리 및 보호 체계가 없는 해당가구에 '공공후견인

제도'를 전남 지적 발달장애인 복지 협회에서 진행 가구 구성원의 안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관별 업무 협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업무의 핵심사업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해 나가는 사업이다. /남호경기자

영광, '여름 불청객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에서 식중독 예방교육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 교육과 연계해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개 읍면의 33개소 모형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식중독 사례·개인위생관리를 주요내용으로 교육했고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용 행주 1천155개를 배부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으로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과일용 구분해서 사용하기 ▲식재료는 깨끗이 세척하고 주방기구는 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 있다.

특히, 손 씻기·음식 익혀 먹기·끓

여 먹기 요령만 잘 실천해도 식중독의 90%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을 통해 음식점, 카페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식중독 컨설팅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며 지난 19일에는 터미널 주변 등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군민들에게 식중독 예방수칙을 홍보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인 음식점을 위해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며, "군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식중독 6대 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여름 나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률기자

장성 제2기 청렴원정대 출범

장성군이 제2기 청렴원정대 출범식을 갖고 '청렴한 장성'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1~4년차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렴원정대는 장성군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모임이다.

선배 공무원과 팀을 이뤄 조직문화 개선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지난해 4월 처음 출범한 1기 청렴원정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획된 일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2기 청렴원정대는 일상 회복에 접어든 만큼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출범식을 찾은 김한중 장성군수는 "2기 청렴원정대가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저부터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3년간 3~4등급에 머물렀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민선8기 목표로 삼고 있다.

군은 청렴원정대와 더불어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도입 ▲자체청렴도(내부) 평가 ▲찾아가는 청렴실천 간담회 ▲청렴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 중이다. /유광중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제5기 공익활동가 기본양성교육을 통해 예비공익활동가 1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수료식을 갖고 예비공익활동가 1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 5기 공익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제5기 공익활동가 기본양성교육을 통해 예비공익활동가 1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수료식을 갖고 예비공익활동가 1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선정된 활동가들은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7회차로 진행된 기본

양성교육을 거쳤다.

'공동체 활동의 이해',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공동체협력과 공감에 필요한 소통법', '마을활동사례공유', '활동 계획 토론 및 계획수립' 등 공익활동가로서 갖춰야할 기본 소양을 중점으로 공익활동가들의 '자기계획수립'을 통해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또 이날 수료식을 통해 주민자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공익활동가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비공익활동가로서 첫 발을 내딛은 수료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각자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철기자

담양, 3기 정원관리사 가든서포터즈 성료 정원관리사 교육 통한 주민주도 마을관리 기대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6월 14일부터 진행한 "2022년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인 '정원관리사 프로그램 가든서포터즈 3기'(이하 정원관리사 프로그램)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담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이 사업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직접 마을정원을 만들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원관리사 가든서포터즈' 기초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정원 전문가를 초빙해 총 5회에 걸쳐 ▲정원의 이해 ▲마을정원사의 역할 ▲국내외 사례를 통한 정원분석 ▲정원 식물 및 재료의 이해 ▲마을정원

만들기 실습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마을정원사 역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민간정원 2호 '죽화경'을 견학하며 마을정원사의 역할과 필요성, 식재수종의 특징을 통해 지역에 맞는 꽃과 나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한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정원사에 대한 이해와 도시재생사업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앞으로 담양읍의 정원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족감을 보였으며,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진성기자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장!
무안을 말하다...




